



회복과 새로운 부흥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이강선 집사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예수 닮기를 (갈 5: 16-23)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내 삶에 소망"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9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축복의 문” (요한계시록 3:7-10)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들을 만납니다.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자녀의 문, 건강의 문, 사업의 문, 환난과 어려움의 문들입니다. 이러한 문들이 모두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6-7 “여호와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땅에서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힘들어 하고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들은 닫힐지 몰라도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는 문인 천국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자녀, 건강, 물질, 명예,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서 잘 살았더라도 만약 죽음 후에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의 문이 내 앞에 열리지 않고 굳게 잠겨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 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너의 아버지도 아니었고 너는 나를 주님으로 따르지 않았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며 천국 문을 닫고 지옥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건강의 문이 닫혀 있었고, 사업의 문이 닫혀 있었고, 편안함의 문이 닫혀 있어서 고생했을지라도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면 인생이 참된 성공이요 끝이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는 축복받은 교회요 성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두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 즉 천국의 문을 두었다고 하신 이유가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천국 문이 열린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하고, 더 나아가 나를 죽이는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열린 천국문의 축복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은 되지 않지만, 몸은 피곤하지만, 내게 불편하고 손해 보는 것이지만 말씀을 감당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진정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고 맞아주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소식

-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 2. 전도 세미나** - 어제 토요일 저녁에 전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2월 28 토요일 오후 3 시에는
전도 실습이 있습니다.
강사 : 뉴네이션 교회 최승환 목사님
- 3. 전도팀 모임** - 오늘 예배 후에 전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 4. 윗놀이** - 지난 주일 예배와 윗놀이 행사를
즐겁게 마쳤습니다.
- 5. 비전 트립** - 소망 공동체 시설 학생들의
비전 트립을 (2월 24~26) 섬깁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 6. 성찬식** - 3월 1일 주일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7. 부장 모임** - 3월 1일 주일 오후에 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행사 및 모임

| | | |
|----|-----------------|---------------------|
| 2월 | 전도 세미나 | 2월 21,25 일 (토요일) |
| 2월 | 각기관 월례회 | 2월 22 일 (주일) |
| 2월 | HOPE 비전트립 후원 | 2월 24~26 일 |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 | | | | |
|------|------------|------|------|------|
| | 2/22 | 301 | 3/08 | 3/15 |
| 대표기도 | 이 강선 | 이 화선 | 정 병철 | 조 정욱 |
| 헌화성도 | 정 명희 | 손 정임 | 정 병철 | 이 강선 |
| 봉사당번 | 각기관 월례회 | 사랑구역 | 사랑구역 | 믿음구역 |

예배출석자 및 헌금

| | |
|-----------|--|
| 지난주 예배 출석 | |
| 지난주 헌금 통계 | |

후원 선교지 안내

| 구역 | 구역인도자 구역장 | 연락처 | 선교사 |
|------|--------------|--------------|------------------|
| 사랑구역 | 유 경주 | 510-634-9374 | 정 주환(소망공동체) |
| | 유 경애 | 925-719-3673 | 장 철호 (미얀마) |
| 믿음구역 | 심 영민 | 415-205-2631 | 박 완주(헝가리집시) |
| | 손 정임 | 808-277-1072 | K 선교사 (Malaysia) |
| 소망구역 | 김 영란 | 510-468-4720 | 김 정림 (탄자니아) |
| | 한 영미 | 510-410-8718 | 조 항권 (우간다) |

성경공부

| | |
|----------|-----|
| 새가족 성경공부 | 4 주 |
| 확신의 삶 | 7 주 |

| | |
|----------|------|
| TEE 성경공부 | 12 주 |
| 성경 통독방 | 52 주 |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 | | |
|--|---|---|
|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 본당 <i>Main Sactuary</i> |
|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
|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
|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
|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 본당 <i>Main Sactuary</i> |
|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 매 월 <i>Monthly</i> |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 | | |
|--|--------------|--------------------|
|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i> | 510-415-0671 | timjdsn@gmail.com |
|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 510-415-1696 | Ejoysong@gmail.com |

교회약도 *Church Map*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과 세상이 보는 성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크기가 성공의 기준의 잣대입니다.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 얼마나 눈에 보이는 성취를 이루었느냐가 성공의 잣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의 잣대는 착함과 충성됨, 즉 올바름과 신실함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눈에 드러나는 성공의 모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모습이 성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에 세상의 기준인 크기와 열매에 집착하려는 마음이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큰 그림을 보며 나가야 합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을 볼 때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 열매와 크기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대신에 비록 부족하여 연약하고 외적인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순수하고 충성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부르신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부장으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인도자로, 혹은 직분은 없지만 어떠한 모습의 섬김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섬김의 열매가 없더라도 인내하며 그 섬김의 자리를 충성되어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섬긴다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고 눈에 보이는 변화나 부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크기와 열매에 매이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눈에 띄는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와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착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성공의 기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